백두산

34호 - 주체91(2002)년 5월 18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한민전≫ 중앙위 선전국,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5.18광주민중봉기 22주년을 맞아

전체국민들이여, 오늘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가열찬 투쟁속에서 영웅적 광주민중항쟁 22주년을 맞고 있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 친미군부독재의 유혈적 폭압에 맞서 불사신마냥 일떠섰던 5월의 광주. 죽음을 각오한 결사항전으로 80만의 대도시를 해방하고 최후의 일각까지 지켜 싸운 5월의 광주.

그것은 예속과 지배, 불의를 용납치 않으려는 우리 민중의 민족적 존엄과 불굴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영웅적 장거였고 반파쇼민주화투쟁으로부터 반미자주화투쟁에로의 방향전환의 역사적 분수령이였으며 근대 동방민중들의 해방운동사에 가장 큰 규모의 혁명적 진출로 아로새겨진 역사적 사변이었다.

아직도 귀기울이면 ≪양키는 물러가라≫, ≪유신체제 철폐하라≫, ≪비상계엄령 해체하라≫고 외치는 항쟁용사들의 피타는 절규가 들려오고 자유와 민주의 성새를 지켜 계엄군을 맞받아나간 그들의 불굴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온다.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고 민중이 주인된 통일조국에서 살려는 것이 바로 광주의 5월용사들의 결연한 의지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와 민주, 통일을 위해 우리의 애국적 청년들과 각계각층 시민들은 남녀노소 따로없이 하나되어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그날의 5월광주는 반미투쟁의 열점이었고 항쟁용사들은 모두가 투사였고 열사였다.

그러나 희세의 군부파쇼살인마들은 저들의 집권욕성취를 위해 환각제까지 먹인 수만명의 공수특전단을 내몰고 수백대의 탱크와 장갑차, 백여문의 대포와 헬기까지 동원해 무차별적인 국민대살육전을 감행했다.

온 세계를 경악시킨 광주대학살만행, 바로 이 몸서리치는 인간살육전의 막 뒤에 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이 서있었다.

미국은 애국적인 광주봉기자들을 폭로로 몰아붙이고 무쇠주먹으로 진압하라는 폭언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자기 관할하에 있는 국군무력의 지휘권을 군부독재자들에게 넘겨주었으며 침략군과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시민살육만행을 조종하였다. 심지어 미8군의 무장헬기까지 발동해 광주시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육했다.

미국의 직접적인 지휘와 사촉하에 광주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피의 참사가 빚어져 수천명이 학살되고 1만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온 도시가 피의 도륙을 당하고 온 거리가 시체로 뒤덮였다.

그날의 피의 항쟁속에서 우리 민중은 미국이 결코 우방이나 수호자가 아니라 잔악무쌍한 살인자, 침략자이며 양키침략군이 이 땅에 남아 있는한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의 민주화, 나라의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광주사태이후 우리 국민은 숭미사대주의와 결별하고 미제에 의해 강요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반미합성을 드높여왔다.

반미자주의 기치높이 전국 각지에서 미국문화원에 대한 방화, 점거 및 미국성조기소각, 미제침략군철수, 북침전쟁연습반대 등 반미투쟁의 불길이 막을 수 없는 대하를 이루며 활화산처럼 터져 올라 ≪한국≫은 반미열풍지대로 전변되었다.

그러나 광주항쟁열사들의 숭고한 염원은 2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역사적 숙원인 자주, 민주, 통일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광주대학살의 원흉인 미제살인귀들은 저들의 죄악에 대한 인정과 사죄는커녕 ≪한국≫을 영원히 식민지로 움켜쥐고 통치하려는 야망을 노골화하면서 우리 민중의 민족자주통일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더욱이 현 미부시행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있지도 않은 이북의 위협을 끈질기게 걸고 들며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격화시켜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하고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호전광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악의 축≫폭언을 연발하면서 이 땅에서 기필코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고 광주민중항쟁을 무참히 탄압한 군부파쇼독재의 잔당들은 오늘도 미국과의 공조를 목터지게 고창하며 반민족적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족자주선언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망에서 파멸의 운명을 직감한 이회창을 위시한 친미분단수구세력은 더러운 집권야욕달성을 위해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을 쌍수를 들어 지지하고 부추기며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 있다.

매국역적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적론을 떠들며 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고 국가보안법폐지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걸음마다 차단하고 있다.

미호전광들과 분단수구세력의 간악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가 조성되고 6.15공동선언이행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체국민들이여!

자주, 민주,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광주항쟁의 넋을 이어 우리 민족에게 핵재난을 덮씌우려는 미국의 책동을 분쇄하고 친미분단수구세력을 단호히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분기해야 한다. 그것은 5월의 부름이고 민족사의 요청이다.

극악한 대북강경책동으로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미국은 악의 화신이며 우리 민족의 제1주적이다.

미국의 대북핵선제공격은 곧 이남에 대한 핵전쟁도발이고 우리에게 안겨질 것은 민족의 전멸과 한반도의 잿더미뿐이다.

각계각층 국민은 5.18광주항쟁용사들의 불굴의 기개를 따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 내외호전광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민족의 운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사수하여야 한다.

광주대학살의 주범인 미국의 정체를 까밝혀 국민의 한이 응결되어 있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를 받아내자.

친미분단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의 영구분열과 핵전쟁참화를 면할 수 없다. 정의에 과감한 국민 모두는 이회창과 같은 친미반북인물의 집권을 막고 그들을 심판하고 매장하기 위한 선거전에서 너와 나의 울타리를 넘어 공동의 보조를 맞춰나가자.

6.15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이행하는 것은 민족자주통일의 확고한 담보이며 5월영령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다.

6.15공동선언을 높이 추켜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갈 때 미제침략군도 내쫓고 민중의 참세상, 통일의 새아침을 안아올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뜻을 같이하는 각계 민중은 하나로 굳게 뭉쳐 6.15공동선언의 깃발을 나부끼며 5월의 광장에서 울린 대단결의 우렁찬 합성과 전진의 억센 발걸음소리를 우뢰마냥 터쳐올리자.

피에 젖은 5월의 깃발은 우리 민중을 투쟁에로 부르고 있다. 승리는 5월의 그날에 살며 싸우는 우리 민중의 것이다. 모두다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광주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올해에 민족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해나가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91(2002)년 5월 16일
서울

2 종합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발표
- 통일연대, 통일부에 공개질의, 면담요청
- 조국의 최남단에서 백두산으로
- 미국 최대규모 국방예산 승인
- 장군님을 통일조국 태양으로 높이 칭송
- 가요 ≪우리는 하나≫
- 박근혜여사 평양방문 의미
- 김명철씨, ≪대선 전 서울방문 없을 것≫

4 노작
-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4)

6 세기와 더불어
- 8장 5절 마촌작전(1)

8 칭송
- 판문점의 흰 안개
- 유화, ≪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

9 노동신문 정론
- 미래를 사랑하라(1)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수령님을 충성으로 모시고 옹호보위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5.18광주항쟁과 노동대중의 과제
- 친미사대매국노의 도미망발을 해부

13 투쟁보도
- 이제 학살의 진짜 원흉을 단죄할 때
- 5.18 22주년, 비민주반자주역통일 현실
- 5.18민중항쟁 22주년 전야제 끝나
- 옛 덕수궁터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 미대사관직원때문에 법규까지 고치다니
- 민주노총 비정규직노동권확보 총력투쟁

15 운동강좌
- 이란의 반제반황제민중운동 경험(1)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발표

남측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위에 대해

북남 단체들사이의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2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하여 올해에 진행할 통일행사들을 협의확정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지난 5월 14일과 15일 금강산에서 하기로 예정되여 있었다.

그러나 남측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금강산실무접촉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 실무접촉이 무산된듯이 떠들어대는 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이며 외곡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실무접촉 때부터 올해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이번 금강산 실무접촉에도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준비를 착실히 추진시켜왔다.

우리는 남측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에 범민련공동사무국을 통해 이미 초청장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남측도 확인하였다.

이러함에도 금강산실무접촉이 무산된 것이 마치 우리측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것처럼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명백히 하건대 이번 금강산실무접촉이 무산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있다.

≪통일부≫는 초청장을 보낸 ≪경로≫에 대해 운운하면서 우리가 보낸 공식 초청문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남측 대표들의 금강산길을 가로막았다.

남측 당국이 북남통일운동단체들의 접촉과 대화를 가로막아 나선 것은 이번만이 아니였다.

이미 알려 진바와 같이 남측당국은 지난해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때부터 여러 북남 통일행사들에서 대표들의 참가를 계속 ≪선별≫하고 ≪제한≫해왔으며 올해 초에 진행하기로 한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때에도 남측 대표들의 참가에 대해 차발하는것과 같은 놀음을 벌려 결국 이 행사를 무산시켰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민족의 화합과 단합, 통일을 위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고 ≪보안법≫을 휘둘러 북남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통일행사들에서 계속 ≪선별≫, ≪제한≫놀음을 하여 통일운동에서 난관을 조성하고 북남단체들의 통일 지향적인 접촉과 대화를 차단하고 있는 남측당국의 반통일적 행위를 규탄하면서 이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남측 당국이 6.15공동선언 리행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지지하고 실천하려는 남조선의 모든 단체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그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떠밀어주는 립장에 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북남단체들 간에 합의한대로 올해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여러 통일행사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성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체 91(2002)년 5월 17일
평양

통일연대, 통일부에 ≪공개질의 및 면담요청≫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통일연대)는 17일 오후 1시반경에 정세현 통일부장관 앞으로 ≪6.15민족통일대축전 실무접촉(5월 13일) 무산에 대한 공개질의 및 면담요청≫ 공문을 보냈다.

통일연대는 공문을 통해 ≪지난 4월 11-12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단체 실무접촉≫에서 6.15민족통일대축전과 8.15민족공동통일행사 그리고 남북여성통일대회와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 등을 갖기로 합의한 것에 기초하여 지난 5월 13일 남북단체사이에 실무접촉을 갖기로 되어 있었으며≫ 북측에서 초청장까지 전달되어 왔다고 밝혔다.

통일연대는 그러나 통일부에서는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실무접촉대표들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남북단체 실무접촉을 무산시켰≫으며, 이로 말미암아 ≪6.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가 불투명해졌을뿐만 아니라 올해 남북사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통일연대는 공문을 통해 ≪5월 13일 예정되어 있던 남측 민간단체 실무대표들의 방북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통일연대는 통일부가 이번 실무대표단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북측 ≪민화협≫에서 보내 온 실무대표 성원들에 대한 초청장이 ≪범민련≫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유로 ≪서류미비≫처리 했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한 행정조치라면서, ≪북측이 초청장을 보냄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 어떠한 경로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측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남측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계속해서 통일연대는 ≪북측과의 통신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하면 적법한 것이 되는데 ≪범민련≫을 통해서 문서가 왔다는 이유로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통일부의 판단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통일연대는 공문을 통해 ≪통일부가 지난 새해맞이 공동행사(2월 24일) 남측 대표단 성원들에 대한 대규모 방북불허에 이어 이번 실무접촉에서 범민련 성원을 배제하고, 범민련을 거쳤다는 이유로 초청장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는 앞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 통일연대 소속성원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통일연대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통일부를 방문하여 정세현 통일부장관을 면담하고 위 질의 내용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요청한다면서, 면담대표단으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집행위원장), 민경우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 등을 선정했다.

이계환 기자
2002/05/17 통일뉴스

조국의 최남단에서 백두산에로

제주도민방문단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 참관

동명왕릉을 참관하는 제주도민방문단

제주도에서 온 각계층 인사 253명이 북녘땅 여러곳을 돌아 보면서 민족의 혈맥을 확인하고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가다듬고 15일 돌아 갔다.

북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초청에 의하여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강영석 리사장(제주도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 제주도민방문단이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북을 방문하였다. 북과 남의 민간차원에서 200명을 넘는 대규모인원으로 방문단이 조직되여 관광이라는 형태로 교류사업이 추진되는것은 처음되는 일이다.

최근년간 제주도에서는 관민일체가 되여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구성되여 북에 감귤을 해마다 수천t씩 보내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기에 도내의 각계층이 참가하였다. 재작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제주도지사가 평양을 방문한 바도 있다.

북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제주도민의 마음에 ≪호응≫(민화협관계자)하여 그들의 소망을 풀어 주기 위한 관광사업에 찬동을 표시, 이번에 대규모방문단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민방문단은 10일 오전 11시 직행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출발, 오후 12시 40분 평양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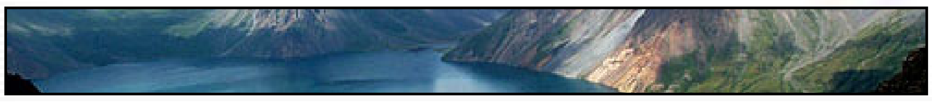
이날 저녁에 있은 환영연회에서는 제주도민이 감귤을 보내 준데 대하여 민화협측에서 정식으로 사의를 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호상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갈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로동, 농업, 녀성, 언론 등 각계층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도민방문단은 체류기간 백두산과 묘향산을 참관하고 평양시와 그 주변의 여러곳을 돌아 보았다.

방문단 성원들은 조국의 최남단 제주도에서 백두산을 찾아 오게 된데 대하여 특별한 감회를 느끼면서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방문단 성원들은 북측사회의 면모와 인민들의 생활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되니 ≪우리는 말도 하나, 피줄도 하나인 하나의 민족≫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북과 남의 당국이 6.15공동선언을 리행하여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여 나갈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2002/05/17 조선신보



미국 최대규모 국방예산안 승인, 지배주의적야망의 노골적 발로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일 미국회 하원이 3,830억US딸라의 2003년도 국방예산안을 공식 승인하였다. 이 국방예산안은 수십년동안의 최대규모로서 지난 동서랭전시기에 지출되던 국방비를 릉가하고 있는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방대한 군사력으로 세계에 대한 정치,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변함 없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보여 주는것으로서 전 세계적규모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신랭전을 몰아 오기 위한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도발이다.

지난해 12월 세계의 전략적안정의 초석으로 되여 온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여 21세기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기로 만들려는 인류의 념원에 도전한 미국은 또다시 세계를 우주군사화, 군비경쟁의 악몽속에 휘말려 들게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를 두고 명백히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현 미행정부가 대군수독점체들의 정치적사환군이며 미국의 모든 대내외정책이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위하여 작성집행되고 있다는것이다.

세계 어느곳에서나 전쟁이 일어 나면 ≪남몰래 미소를 짓군 한다≫는 미국의 군수독점체들은 지금 거액의 국방비지출로 흥분에 들떠 있다 한다.

부쉬행정부는 다층미싸일방위체계수립과 새형의 핵무기개발, 대대적인 무기생산으로 군수독점체들에게 폭리를 안겨 주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과 막대한 정치자금을 보장 받으려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집권층은 다른 나라들에 ≪불량배국가≫, ≪테로지원국≫, ≪악의 축≫이라는 루명도 서슴없이 씌우는가하면 고의적으로 지역위기사태들을 조성하고 국제정치군사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력간섭을 감행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란 이렇게 위선에 불과한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군사적위협≫설을 집요하게 류포시키며 남조선호전세력들을 부추겨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F-15K≫기와 같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량 강매하고 있는것도 그 침략적본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바로 미국에 의하여 엄중히 유린되고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은 세계평화의 암적존재이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세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군사제패전략이 인류사에 평화의 파괴자, 략탈자로서의 오명으로 새겨 질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2/05/16 조선중앙통신 논평

김정일영도자님을 통일조국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

한국문화인총연합회 회원 신일규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통일조국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회원들에게 카세트에 녹취된 ≪우리는 하나≫를 들려주며 이 노래야말로 온 겨레의 통일지향을 절절하게 담고 있는 명곡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숨결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는 노래이다. 둘이 되면 살 수 없고 둘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대목은 정말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폐부로 더욱 절절히 느끼게 한다. 특히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라는 대목은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통일조국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살게 될 그날을 확신하고 있는 겨레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 가슴을 뜨겁게 한다.≫

신씨는 계속해 노래 ≪우리는 하나≫를 21세기 통일지정곡으로 정하고 7천만 겨레가 함께 부르며 누리에 빛날 **김정일**태양조선 통일강성대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혼신을 다바치자고 호소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16일

가요 ≪우리는 하나≫

최근에 나온 가요 ≪우리는 하나≫는 조선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통일열기로 끓게 하고 있다.

가요는 반세기이상 분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조선민족이 예로부터 땅도 하나, 피줄도 하나, 언어와 력사도 하나이며 둘로 갈라 져서는 살수 없다는 겨레의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4월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태양절기념무대들에서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해외각지에서 온 동포예술인들이 꼭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 하면서 저저마다 이 노래를 무대에 올렸다. 그중에는 남조선의 김련자가수도 있다.

또한 금강산에서 있은 북과 남의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장소에서도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였다.

내외의 관심속에 련일 대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무대에서도 이 노래의 절절한 선률이 울려 퍼져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2002/05/16 조선중앙통신

박근혜여사 평양방문 의미

≪한국미래련합≫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박근혜여사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11일~14일) 남조선의 이전 대통령의 딸이며 6.15북남공동선언을 반대하여 온 야당 ≪한나라당≫과 결별하여 신당창당에 움직이는 그의 평양방문은 내외의 시선을 모았다.

≪북과 남이 힘을 함쳐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자≫. 평양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여사는 이런 취지로 북남관계의 개선발전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된 리회창이 부쉬정권의 대북강경정책에 추종하고 있는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여사의 부친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 7.4공동성명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북남관계는 대결상태에 있었다. 또 박근혜여사는 정계에 진출하면서 독재정권의 맥을 이어 온 ≪한나라당≫에 몸 담았다. 그래서 여사는 평양방문 직전 ≪내 같은 확실한 사람이 평양에 가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른바 ≪사상검증≫을 좋아 하는 우익반공언론도 박근혜여사를 그 대상으로 삼지 못할것이다.

통일문제를 론하는데서 보수냐 진보냐는 상관이 없다. 사상, 리념, 신앙을 초월해야 하기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은 보수가 아니다. 정확히 부르자면 외세에 추종하는 우익반공세력이다. 대치점은 민족끼리 손 잡느냐 외세에 추종하느냐에 있다.

중국 심양의 사건을 두고 일본에서는 광란적인 반북선전이 벌어 지고 중일간의 외교마찰을 빚고 있으나 막후에는 인권을 빙자한 외세와 야합한 대결세력이 있다. 박근혜여사의 방북이 보여 준 화해단합에로의 흐름을 막아 보자는 비열한 소동이다.

2002/05/17
조선신보

김명철씨,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문 대선 전엔 없을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국 대선 이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통일전략≫ 저자이며 이북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재일동포 김명철(조미평화센터 소장)씨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클리 카터렛오션프런트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 살 한민족 포럼≫에 초청돼 행사가 끝난 후 미주 한국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에서 김 소장은 ≪**김정일** 위원장은 6.15 북남회담에서의 약속을 준수할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답방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선 이전은 아니다. 이유는 자칫하면 이남 정치에 간섭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반통일 세력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서울에 있어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소장은 ≪김영삼씨가 **김정일** 위원장을 ≪전쟁범≫이라 하고 이남 국방부가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 미국에 놀아나 군사연습(화랑훈련)을 했다. 이는 6.15공동선언문 등의 내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므로 (현재를) 적절한 답방 시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최근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의 워싱턴 포스트지 ≪당근과 채찍≫ 발언에 대해 ≪그같은 말이 나온 뒤 이북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 되는데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회의가 연기됐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 그 회의는 곧 다시 열릴 것≫이라며 ≪만일 그 때문에 모든 것이 취소됐다면 김 위원장이 박근혜씨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고 21세기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개척한다는 취지 아래 2일간 열린 이번 한민족포럼에는 김소장 이외에 UC버클리대 한국학센터 부소장 남궁건 박사, 김일평 코네티컷대학 명예교수 등 국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왕길환 기자
2002/05/17 연합뉴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4)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2)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2)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과 집단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농업 근로자들이 견결한혁명정신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공동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려면 농업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농촌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농업 과학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촌에서 성인 교육 사업과 과학기술지식 보급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농업 근로자들이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현대적 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발전시키는 것은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며 온갖 계급적 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며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완전히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발전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 이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넘기는 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비할 바 없이 튼튼하여 졌으며 농민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농촌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넘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넘기는 사업은 농업 협동화 운동에 못지않은 커다란 사변이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회경제적 변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넘기는 사업을 일정한 시험 단계를 거쳐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적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인테리를 혁명화하는 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데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오랜 인테리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교양개조되고 새로 자라난 인테리들이 인테리 대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인테리 이중성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였습니다.

그러나 인테리들에게는 아직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있으며 나쁜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인테리들은 생산 실천과 떨어져 있고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업 상 특성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할 기회가 적으며 낡은 사상에 쉽게 물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참다운 로동계급적 인테리로 만들어야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한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인테리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모든 인테리들이 늘 현실속에 들어가 실천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테리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강의한 혁명적 의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 운명과 우리 혁명의 전도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고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 자라난 사람이라고하여 저절로 혁명 사상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아들딸이라고하여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을 가질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혁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우리 혁명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인민이 겪은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고 제국주의와 착취 제도를 끝없이 미워하며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숨은영웅들의모범을따라배우는운동을 벌릴 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숨은영웅들의모범을따라배우는운동은 우리 당의 긍정 감화 교양 방침을 구현한 대중적 사상 개조 운동입니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이며 그들의 모범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 특질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실성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입니다. 숨은 영웅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위하여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숨은 영웅들은 그처럼 훌륭한 행동을 하면서도 명예와 보수를 조금도 바라지 않았으며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쳤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영웅이며 모든 사람들이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모범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을 영웅쪄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숨은영웅들의모범을따라배우는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숨은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조직지도 사업을 짜고들며 광범한 대중을 이 운동에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 세계와 혁명적 사업 기풍을 따라 배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적 수준을 대학 졸업정도로 높여 낡은 사회가 남겨 놓은 정신 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입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하여서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전반적 문화 지식 수준을 훨씬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점차 사람들의 문화 지식 수준을 대학 졸업 정도에 이르게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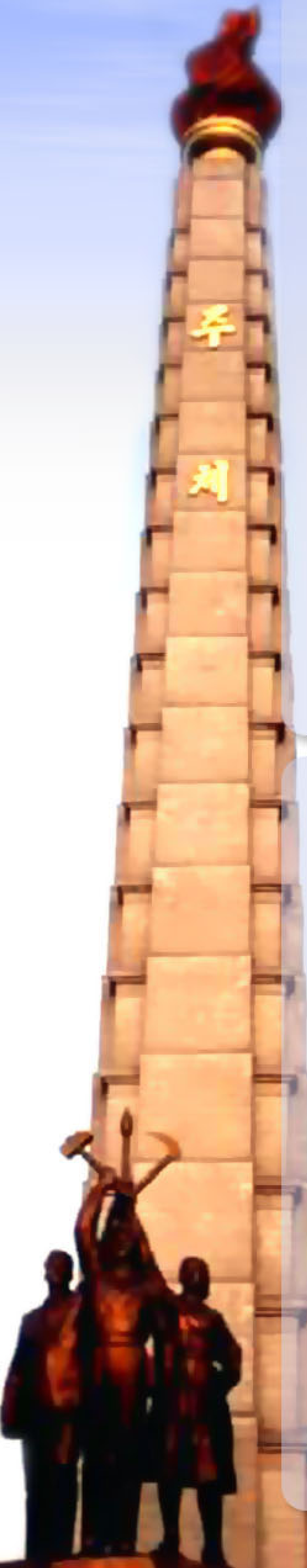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교육 사업을 잘하여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고 능력 있는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낼 수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 문화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들에서는 교육조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학교교육이 필요한 교육학적 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 데 힘을 넣으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 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 토대 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고 그 실현 방도를 밝혀줍니다.



여야 합니다. 지금 있는 민족간부 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지역적 배치와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어촌들에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장대학, 농장 대학, 어장 대학들과 고등 전문 학교들을 많이 내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텔레비죤 방송대학을 새로 내와야 합니다. 앞으로 고등 의무교육은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새 세대들부터 먼저 실시하면서 점차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지난날 고등교육을 받지못한 근로자들을 다 망라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와 문화 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투쟁과 혁신에로 고무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문화 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 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할 것입니다.

문화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요소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 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 예술적 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예술 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문화와 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입니다. 문학예술 활동을 대중화하여 근로자들의 창작 열의와 예술적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문학예술이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적 문화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낡은 생활양식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그것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관습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 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지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는 것과 함께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의 체력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체육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민 보건 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동의학과 신의학을 옳게 배합하고 의학 과학기술을 높이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3)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동지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 로선입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 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 토대 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고 그 실현 방도를 밝혀줍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추진되여야 합니다. 주체화를 떠난 현대화, 과학화는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근본목적에 부합될 수 없으며 현대화, 과학화를 떠나서는 주체화를 원만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 데 대한 로선을 옳게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며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위업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 로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오늘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나라의 자연 부원을 충분히 개발 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부문 구조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더욱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여 있는 지하자원을 남김없이 개발 리용하는 것은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하 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 장악하며 새로운 석탄 생산 후보지와 쇠돌 생산 후보지를 넉넉히 마련하고 여러 가지 합금원소광물을 비롯한 유색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을 더 많이 찾아내며 원유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을 집중하여 그 생산전망을 확고히 열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며 우리나라 산림에는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식물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산림을 전망성 있게 개조하고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나무심는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벌려 가까운 앞날에 200만 정보의 산림을 더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목재 생산을 늘이는 한편 산림 자원을 리용하여 섬유 원료와 종이 원료, 기름 원료, 약 원료, 먹이 원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료를 많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오늘, 바다 자원을 적극 개발 리용하는 것은 인민경제 발전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바다는 무진장한 자원의 보물고입니다. 우리는 바다의 광물자원, 동식물자원,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인민경제 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5. 마촌작전(1)

그해 가을 유격구에는 열병이 돌았다. 오한과 고열이 겹치면서 피부에 불긋불긋한 반점이 생기는 이 급성전염병은 굉장한 전파력을 가지고 소왕청골 안을 휩쓸었다. 나도 이 병에 걸려 십리평에서 옴짝 못하고 앓았다. 후에 알게된 데 의하면 발진프스였다.

지금의 새 세대들은 발진프스를 모르고 산다. 벌써 오래 전에 전염병을 근절한 무균지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60년 전까지만 해도 유격근거지 인민들은 전염병 때문에 모진 고통을 겪었다. 그리 크지 않은 골짜기에 수천 명 주민 오골오골 모여서 살다나니 병도 오만가지가 다 돌았다. 사흘이 멀다하게 ≪토벌대≫가 달려들어 불질을 하고 이산 저산 쫓아다니며 도륙질을 하는 때여서 위생조건이 불리해도 개선할 도리가 없었고 병을 예방하고 싶어도 적합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 전염병같은 것이 발생하면 삽짝문앞에 새끼줄을 치거나 바람벽에 ≪출입금지, 전염병≫이라고 쓴 광고딱지를 붙여놓는 것이 고작이었다.

적들이 수천 명이나 쓸어들어 근거지를 없애보겠다고 날마다 사생결단을 싸움을 걸어오는 때에 전염병까지 겹쳤으니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련을 겪는 셈이었다. 나까지 덜컥 열병에 걸리게 되자 지도부의 간부들은 다같이 사색이 되어 유격구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였다.

그들은 나의 호위 겸 간호를 위하여 김택근소대장과 그의 부인을 보내주고 1개 소대 가량의 병력까지 붙여주었다. 다른 부대들이 다 전투하려 나갈 때에도 그 대원들만은 남아서 십리평을 지켰다. 김택근 부부는 둘 다 북만 액하라는 곳에서 살다가 동만땅에 와서 혁명투쟁에 참가해보겠다는 충동을 가지고 목릉을 거쳐 왕청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이 부부외에 또 최금숙이라고 부르는 왕청현 부위가 당적으로 나의 간호를 책임지고 십리평에 와 있었다.

최금숙

처음에 나는 춘자라는 여자의 집 윗방에서 병치료를 하였다. 그 여자의 남편 김권일은 구당 서기로도 사업하고 후에는 현당 서기로도 활동하였다.

적들이 유격구에 달려들기만 하면 김택근은 나를 업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피해다니곤 하였다.

≪토벌≫이 심해지자 그들은 나를 업고 물곬을 따라 십리평골 안에 깊숙이 들어가 적의 발길이 닿지 못할 어떤 바위츠렁 밑에 막을 치고 밧줄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자그마한 은신처를 마련하였다. 나는 여기서 세사람의 도움으로 병을 완치하였다.

그 세사람은 나를 사경에서 구원해준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들이었다. 그들의 지성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십리평 골짜기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병이 어찌나 심했던지 나는 그때 여러번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다. 내가 혼수상태에 빠질 때마다 그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이렇게 앓아 누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택근이 식량공작을 나가고 없는 날이면 최금숙이 나를 부축해가지고 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아 헤맸다. 내가 이 여자의 덕으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는 원래 왕청에 온 초기부터 최금숙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가 남북만원정을 끝내고 마촌에 왔을 때 그는 대왕청에서 제2구 부위로 공작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현부녀회사업은 이신근이 맡아하였다. 최금숙이 사업토의를 하러 이신근을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치백 노인의 집에서 종종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들은 서로 자매간처럼 가깝게 지냈다.

이신근은 최금숙이 글을 빨리 쓴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무심히 들었다. 여자가 글을 빨리 쓰면 얼마나 빨리 쓰랴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그가 정리한 회의록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들이 하나도 생략되지 않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였다. 현대 속기수들이 글을 빨리 쓴다고 하지만 그와 비교할 만한 속기수를 나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최금숙은 우리가 토론한 것들을 하룻밤사이에 다 정리해내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회의를 할 때마다 그에게 기록을 위임하곤 하였다.

최금숙은 남성들처럼 성미가 서글서글하고 인자하면서도 대가 있고 혁명적 원칙성이 강했다. 내 말이라면 모래불에서 배를 끌라고 해도 끌 그런 여자였다. 내가 그에게 공작임무를 주어 적 통치구역에도 여러 번 파견하였는데 적구에 가서도 일을 아주 능란하게 하였다.

최금숙은 부모가 없는 나를 여성으로서 무척 동정하였다. 그가 나를 친동생과 같이 사랑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보면 누이라고 불렀다.

내가 싸움터에 나갔다 돌아오면 이 여자가 제일 먼저 나를 찾아왔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한 가지씩 준비했다가 살그머니 쥐어주곤 하였다. 어떤 때에는 옷도 기워주고 털실로 내의도 떠주었다.

최금숙이 리수구골 안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가 그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매간처럼 가깝게 지내다나니 만나기만 하면 서로 농도 자주 하였다. 함경도 지방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런 것처럼 그도 동네집 늙은이들을 만나면 ≪아배≫나 ≪아매≫라고 불렀다. ≪온성집 아배≫니 ≪무산집 아매≫니, ≪회령집 아재≫니 하는 식의 말은 어휘도 별스러웠지만 억양부터가 재미나게 들렸다. 내가 자기의 말투를 흉내내거나 좀 지나친 농을 하여도 그 여자는 성을 내지 않고 생글생글 웃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대범한 최금숙이도 한 가지 농만은 잘 받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를 가리켜 미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자기를 보고 미인이라고 하면 그는 놀려준다고 야단이었다. 나는 최금숙이 내 잔등에 주먹질을 해대며 야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미가 나서 그가 어색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미인이라고 농을 하였다. 사실 그는 뛰어난 미녀는 아니었지만 아주 복성스럽게 생긴 여자였다. 나의 눈에는 도회지의 아가씨나 숙녀들보다도 최금숙과 같은 유격구의 여자들이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이 세상에 유격구의 여성들처럼 아름다운 여성들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얼굴에 화장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매연속에서 고생고생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타발하지 않고 오직 혁명에만 전심전력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최상의 미를 찾았다. 내가 최금숙이를 가리켜 미인이라고 한 것은 이런 심리의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때 근거지의 여성들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노획한 전리품들 속에는 종종 분이나 크림과 같은 화장품들이 섞여 있을 때도 있었다. 처음에 우리 대원들은 그런 화장품들이 보이기만 하면 일본 계집년들의 상판대기를 곱게 해주는 물건딱지들이라고 하며 개울속에 집어던지든가 발로 막 짓뭉개놓고 하였다. 얼마 동안은 나도 향내나는 고급 전리품이 그렇게 처분되는 것을 방임해두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해서였다. 우리 유격구의 여성들은 그 당시 화장을 하지 않았다. 분내나 향수내를 피우며 돌아다니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간혹 명절같은 때 어쩌다가 화장을 하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정작 대중집합소에 나타나면 뒷구석에 서서 줄곧 남의 눈치를 살폈다.

나는 이것을 분하게 느꼈다. 그들이 일년내내 분도 바르지 못하고 검댕이나 잿가루가 묻은 얼굴로 포연내를 맡으며 고생스레 살아가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대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화장품을 버리지 말자. 우리의 곁에도 여성들이 있지 않은가. 유격구의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라던가. 우리의 여대원들과 부녀회원들보다 더 훌륭한 여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 말에 호응하였다.

≪옳습니다. 우리 유격구의 여자들보다 더 좋은 여자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벌써 1년반째나 이 유격구에서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고 ≪토벌≫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애인들을 잃고 엄동설한에 홑옷을 입고 한지에서 떨면서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유격대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남아들로서 그들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연지, 곤지를 찍어 세상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우리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좋은 것이 생기면 그들에게 다 보내줍시다. 화장품이 생기면 분도 바르라고 합시다.≫

우리는 어느날 부녀회원들에게 줄 화장품을 노획해가지고 최금숙을 찾아갔다. 최금숙은 그 화장품 보따리를 보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날부터 소왕청유격구에서는 분내가 돌기 시작했다. 명절날 아동유희대의 공연이 진행되는 구락부에 갔더니 거기서도 분내와 크림내가 났다.

그런데 최금숙이만은 웬일인지 며칠이 지나가도 화장을 하지 않고 다녔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왜 화장을 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는 대답대신 나를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기만 하였는데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았다. 이신근을 통해 그 곡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최금숙이 자기 몫으로 남겨놓았던 화장품을 십리평의 부녀회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다는 것이었다.

그후 우리는 적의 후방을 치고 다시금 많은 양의 화장품을 노획했다. 나는 그중 일부를 최금숙에게 주면서 이번만은 자기 몫을 양보하지 말고 화장을 꼭 해보라고, 화장한 금숙 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최금숙은 목숨을 걸고 구해온 화장품인데 대장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화장을 하겠노라고 하였다.

이성림

며칠 후 나는 최춘국중대의 사업을 지도하려고 십리평에 가다가 대왕청하기슭에서 최금숙을 만났다. 인적기가 없는 강가에서 행길 쪽으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물 속을 들여다보는 그의 청초한 모습이 보이자 나는 이성림전령병을 시켜 대왕청부녀회장이 왜 물가에 앉아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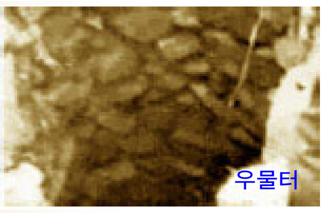
이성림이 최금숙의 곁에 다가가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멀리서 바라보였다. 무슨 일 때문인지 어린 전령병은 갑자기 배를 그러쥐고 까르르 웃어댔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의 곁으로 바삐 걸어갔다.

≪대장 동지, 저 금숙 누이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내가 물가에 나타나기 바쁘게 이성림은 웃음을 그치고 최금숙의 얼굴을 손짓해 보였다.

그순간 나도 부지중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복성스럽고 해맑은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부녀회장의 얼굴은 온통 연지와 크림으로 얼럭덜럭 매닥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금숙 자신은 영문을 모르고 우리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우물터

≪부녀회장 아지미, 얼굴이 만국지도가 됐어요.≫

이성림이 이런 마을 해서야 최금숙은 ≪에그머니!≫하고 시냇가에 펄썩 주저앉아 얼굴에 와락와락 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화장을 서투르게 한 것이 죄가 될 수 없고 수치로 될 수 없건만 그는 큰 창피라도 당한 사람처럼 몸둘 바를 몰라하였다. 물가의 빨랫돌 앞에는 며칠 전에 내가 보내준 크림과 연지통이 놓여 있었다.

내가 보기에도 최금숙은 화장솜씨가 대단히 서툴렀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어찌 놀림가마리로 삼을 수 있겠는가. 최금숙은 화장을 처음 해보는 여자였다. 그에게는 거울조차 없었다. 그래서 시냇물에 얼굴을 비쳐보며 조심조심 크림도 바르고 연지도 찍었다. 그가 얼굴에 만국지도를 그린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일도 아니였다.

이성림이 아까처럼 또 최금숙의 곁에 다가서서 시까스르려는 눈치를 보이자 나는 손을 가로저어 그를 제지시켰다. 아마 그때 이성림이 몇 마디만 더 했더라면 최금숙은 그 시냇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달아나버렸을 것이다.

아침마다 화려한 체경이나 삼면 경대앞에서 고급화장품으로 얼굴을 다듬는 여성들이 이 대목을 읽게 되면 누구나 최금숙을 동정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 지참품으로 삼면 경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꾸려나가려는 우리 여성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 땅에 배를 붙이고 풀죽을 먹으며 근거지를 지키느라고 악전고투할 때만 하여도 소왕청 주민들 속에는 삼면 경대는커녕 손거울을 가진 여자조차 몇 명 없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싶으면 모두 최금숙이처럼 강가로 나갔다.

나는 그날 최금숙의 화장솜씨를 흉보던 이성림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유격구의 여자들에게 거울을 마련해주지 못한 내 자신에게 화를 냈다.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 바치는 정성은 그들이 우리에게 기울이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나 인민이 우리를 섬겨주고 받들어주는 그 무한대한 온정을 능가할 수 없었다.

최금숙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내가 자기에게 준 믿음보다 몇 배는 큰 사랑과 정성으로 시종일관 나를 따뜻이 간호해주었다. 나의 병이 호전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100리나 떨어져 있는 도문이였다. 도문은 조선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물산의 집산지였다.

최금숙은 거기서 조선 배와 조선 사과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십리평으로 돌아왔다.

그 배와 사과를 보니 눈물이 났다. 멀리 저 세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최금숙으로 소생하여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환각도 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어머니나 친누이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이였다.

≪금숙 누이, 누이의 이 신세를 어떻게 하면 다 갚을까!≫

나는 최금숙이 쥐어주는 조국의 과일향기를 가슴 뭉클하게 들여마시며 감사의 정에 넘쳐 말했다.

≪신세? 정 신세를 갚을 생각이라면 독립된 다음 평양구경이나 한 번 시켜주우다. 평양이 천하제일 강산이라는데….≫

최금숙의 대답은 농담 절반, 진담 절반이면서도 사뭇 절절하였다.

≪그건 염려마십시오. 아무렴 그런 소원이야 못 풀어주겠나요. 누이, 조국이 해방된 다음 평양땅을 밟아보기 위해서도 죽지 말고 싸웁시다!≫

≪나는 죽지 않는다우. 그런데 난 동생이 항상 걱정이라니까. 도무지 몸을 돌보지 않으니….≫

최금숙은 내 입맛을 돋구느라고 절구에 찧은 깨를 얻어다가 찬에도 넣어주고 죽에도 넣어주었다. 그는 내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것도 영양부족 때문이라고 하면서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해주지 못해 여간 애를 태우지 않았다.

정성은 극진하였으나 모든 것이 귀하고 바른 때였다.

김택근이 개천에 나가서 버들치를 잡아다가 썩장에 넣고 끓여도 주고 구워도 주었다. 근 하루에 70~80마리씩 고기를 잡고 하였는데 열성도 열성이거니와 솜씨 또한 여간 아니였다.

최금숙은 내 밥상에 끼마다 버들치밖에 놓아주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기던 나머지 마을에 가서 국수를 받아왔다. 그는 나의 안부를 묻는 유격대원들에게 대장의 몸을 빨리 추세워야겠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야단이다. 택근소대장이 잡아오는 버들치만으로 매일같이 밥상을 차리자니 딱해서 못 견디겠다. 그런데도 대장은 맛있다고만 하더라고 하였다.

그말은 들은 우리 부대의 고기잡이 명수들이 하루는 후리질을 하여 한 가마니나 되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거처로 찾아왔다. 최금숙은 그 물고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사 때마다 내 밥상에 놓아주곤 하였다.

병에 차도가 좀 보이자 최금숙은 내가 정신을 잃고 앓을 때 어떤 알지 못할 여자의 이름을 줄창 부르더라고 하면서 우스개삼아 그 입내까지 냈다. 그 입내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가 김택근의 아내와 함께 사전에 꾸며낸 것이었다. 아주 엉터리없는 내용이었지만 나는 발병 후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눈물겨운 연극이었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병상에 매인 나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 그런 연극을 꾸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금숙은 내가 병이 완치되기 전에 마촌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날짜까지 속여가며 나를 간호해주었다. 나는 실신상태에서 깨어날 때마다 며칠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가고 묻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여자는 날짜를 줄여서 대답하곤 하였다. 가령 내가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으면 2시간이라고 대답하였고 닷새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앓았다면 5시간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해 넘겼다. 병이 완쾌된 다음 그가 말한대로 앓은 날짜를 합쳐보니 열흘도 되나마나하였다.

나는 열흘이라는 말에 조금 마음을 놓았다.

그가 대포를 불었다는 것은 최춘국이 나의 초막으로 문병을 왔을 때에야 들장이 났다. 이 고지식한 정치지도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 몰랐다. 그는 내가 앓은 것이 한달 동안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 한 달이라는 말을 듣고 최금숙은 눈치가 곰발바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애꿎은 최춘국을 나무랐지만 나는 정신을 펄쩍 차리고 마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휘부에서는 산더미같이 쌓인 정보자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정보자료들에는 간도치안을 위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내일 계속)

소왕청 마촌의 유격대지휘부 귀틀집

판문점의 흰안개

오실 때는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신줄은 마음으로 이남이 다 알았습니다
판문점에 오셨어도 서울에 오신듯
눈물로 안기며 지켜드렸습니다
아 흰안개 흰안개되어
장군님 안녕을 지켜 드렸습니다

가실 때는 가실 때는 온 서울이 바랬습니다
맹세 속에 마음으로 바래워 드렸습니다
판문점의 그날에 통일을 맞은듯
안개로 피던 마음 꽃으로 피렵니다
아 꽃바다 꽃바다 펼쳐
장군님을 통일의 단상에 모시렵니다
기어이 모시렵니다

유화 ≪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

유화≪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1982년 8월 주체사상가나전국연구소 문학예술인지부책임자 프레드 아그보블리가 드린 선물이다.

가로 190㎝, 세로 135㎝의 크기를 가진 이 유화는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솟아오른 태양과 유난히 빛나는 별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봉화를 한 손에 높이 추켜든 흑인남자가 철쇄를 산산이 끊어버린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유화≪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을 선물로 드리게 된 데는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

어느 해 그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에 그 나라를 방문하고 있던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공연하는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를 보게 되었다.

조선의 가극에 대하여 이해가 없었던 그는 무대막이 열린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가극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갔으며 흥분된 심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꽃 파는 처녀≫는 그에게 있어서 난생 처음 보는 가극이었다. 공연은 끝났으나 그는 격동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가극은 그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야말로 사람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진정한 예술이며 현대가극의 본보기이다.

고루한 서방가극과는 달리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 온갖 불평등과 예속을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세계는 조선의 혁명가극을 따라 배워야 한다. 이러한 신념이 그의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를 ≪정신적 불사약≫이라고 소리높이 외치고 싶었다.

혁명가극의 노래와 음악, 무용과 무대미술도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다.

어떻게 되어 동방의 조선에서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와 같은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걸작들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조선의 혁명가극을 보게 된 때로부터 그는 조선의 예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가극혁명의 길을 개척하시고 가극의 새 시원을 열어놓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술의 천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예술의 천재이실 뿐 아니라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 풍부화시켜 나가시는 사상이론의 영재이시고 탁월한 영도자,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인민의 어버이, 만민의 스승이시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마음속으로부터 끝없이 경모해 오던 그는 1982년 7월 중순 어느 날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에 접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자기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은 선물을 드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주시대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선물로 드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형상해야 할지 몰라 모대기던 그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반영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 내용을 유화에 담기로 하고 그 구도를 한장한장 그려보았다.

고심하던 끝에 그는 여러 장의 초고지를 지부성원들에게 펼쳐놓았다.

지부성원들은 그의 생각을 절대 찬성하면서 그가 구상을 무르익힐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지혜를 합쳐 마침내 그들은 태양과 향도성을 형상하고 봉화를 쳐든 흑인남자의 모습, 끊어져 동강난 철쇄의 고리들을 화폭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일치를 보게 되었다.

유화창작은 지부에서 가장 기량이 높은 미술가가 맡아나섰다.

누리에 찬란히 비낀 주체사상의 빛발을 따라 철쇄를 마스고 자유와 해방, 새 생활 창조에 떨쳐나선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유화 ≪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은 이렇게 선물로 마련되었다.

전람관을 찾는 사람들은 유화 앞에서 그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에 깊이 끌려 들어가 오랫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군 한다.

미래를 사랑하라(1)

노동신문 정론 - 주체91, 5월 16일

력사는 앞으로만 전진한다.

위대한 선군위업은 혁명의 빛나는 계승과 최후승리를 안고 있다.

미래를 사랑하라!

20세기 백두산빨찌산들이 결전장마다에서 멸적의 총성을 울리면서도, 사형장으로 웃으며 나가면서도 소리높이 웨쳤던 이 구호가 세월의 언덕을 넘어 21세기에 사는 우리 인민의 귀전을 두드린다.

원쑤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락관한 녀투사의 웨침소리 선군시대의 벽을 세차게 울리며 혁명의 최후승리에로 천만심장을 힘 있게 고무해 준다.

미래를 사랑하라!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 구호를 더 높이 추켜 드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보다 큰 승리에로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이 구호에서 우리 혁명의 력사적 계승성을 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락관한다.

피눈물속에서 솟구쳐 일어 나 총대를 앞세우고 결사의 싸움길을 걸어 온 선군의 7년이 있어 승리의 오늘이 있고 오늘의 선군길이 있어 보다 찬란한 미래가 있다.

력사의 풍랑을 용감무쌍히 헤치며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의 피줄기가 누구에 의하여 그리도 세차게 이어 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슴을 터쳐 세상에 말한다.

선군을 신념화하라

우리는 위대한 선군시대에 살며 혁명하고 있다.

선군시대는 고전가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력사발전의 새 시대이며 무적의 군력으로 민족의 운명과 자주적인류의 미래를 힘 있게 열어 나가는 장엄한 진군의 시대이다.

자주와 정의의 력사는 선군으로 하여 마침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였으며 새 세기의 앞날을 환히 비쳐 주는 서광을 받아안게 되였다.

선군에서 우리의 미래가 온다.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꽃 피우고 아름다운 념원을 주렁진 열매로 익혀 주는 힘은 선군에 있다.

밝아 오는 새벽노을처럼 청신하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처럼 풍요하며 우주와 같이 무한대한 미래가 선군길에 펼쳐 진다.

수천년 인류력사에서 가장 크나큰 행운을 안겨 줄 광명한 미래가 소리치며 달려오는 이 땅에서 조국의 한줌 흙과 한송이 꽃, 어린이들의 맑고 순결한 눈동자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게 되는가.

온 나라가 하나의 숨결, 혁명적군인정신의 거센 숨을 쉬고 큰 걸음을 내짚는 이 땅의 그 어느 집의 문을 두드려도 좋고 그 어느 사람의 흉금을 헤쳐 보아도 좋다.

식탁우에 요란한것이 없어도 인민은 앞날을 내다보며 웃고 옷차림에 번쩍거리는 것이 없어도 사람마다 가슴을 쭉 펴고 걸어 갈 길을 확신에 넘쳐 바라본다.

다 죽는다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면서 살아 났는가. 황금을 믿고 사는 나라들에선 폭탄소리가 귀 아프게 들려 오는데 선군을 믿고 사는 이 땅에서는 어찌하여 락천적인 노래소리가 그렇게도 흥겹게 울려 나오는것인가.

많은 나라들이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희망없이 살아 가고 발등에 떨어 진 분쟁과 가난과 기근의 불도 끄기 힘겨워 눈물을 뿌리는데 과연 어떻게 하여 일찌기 없었던 일대 고난을 겪으며 총포성 없는 전쟁을 치른 내 조국에서는 혁명의 천년만년 앞날을 신심드높이 내다보게 하는 열병행진, 홰불행진의 발구름이 장엄하게 울리고 태양민족의 락관 넘친 ≪아리랑≫무대가 그렇게도 희한하게 펼쳐 진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도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습니다.≫**

미래를 사랑하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울려 퍼진 이 락관주의구호는 긴긴 세월 조선의 혁명가들을 래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떠밀어 주었다.

제국주의와의 판가리결사전에서 련속 통장훈을 부르신 승리의 단상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또다시 선군의 앞길에 홰불처럼 높이 추켜 드신 불멸의 구호,

제국주의원쑤들이 강요하려는 전쟁책동에 미래를 사랑하라는 락관주의기치를 들어 대답해 나서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숭고한 인생관이 천만군민의 심장에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활활 달아 준다.

미래,

우리가 말하는 미래에는 남달리 깊은 뜻이 어려 있고 성스러운 력사가 담겨 져 있다.

주체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고 백두광명성을 조선의 찬란한 미래로 마음속에 안으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 온 우리 민족은 오늘 선군시대의 높은 언덕에 올라 내 조국의 더 광명한 미래를 신심드높이 내다보고 있다.

어느 한 철학가는 만약 인간이 미래를 선명하고도 완성된 화폭으로 표상할수 없다면 그 무엇도 인간으로 하여금 그 미래를 위하여 힘겨운 건설을 하고 완강한 투쟁을 하며 지어 생명까지 바치게 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그 누구든 선군시대의 령마루에 올라 서면 모색과 탐구, 창조와 투쟁을 기울이며 찾아 모대기던 진보적인류의 참다운 미래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다.

선군위업으로 하여 자주적인민, 진보적인류가 걸어 가야 할 참다운 력사의 로정이 뚜렷이 그어 졌다.

선군정치는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인민의 리상과 미래를 현실로 꽃피우는 위대한 정치이다.

선군의 위력은 총대중시사상의 구현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포부, 혁명하는 인민이 지향하는 가장 성스러운 리상을 폭 넓게 안고 있다.

총대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이 그 총대의 완전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력사의 흐름은 바로 잡힌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전진을 핵무기를 들고 가로 막아 나서는 력사의 반동인 제국주의를 총대로써만 제압하고 타승할수 있고 총대로써만 민족의 앞길을 열고 밝은 미래를 안아 올수 있다는것이 선군정치가 가르치는 진리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고 고난속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선군정치는 오늘 세계의 이목을 끄는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으며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보편적진리로 공인되고 있다.

나라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바라는 정치가라면 국경과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선군사상에 공감하고 선군정치를 환영하는것이 21세기 세계정치무대의 기본추이로 되고 있다.

만경대!

누구나 여기에 서서 흘러 간 과거를 추억하고 다가올 래일을 내다보면 참으로 심원한 력사의 진리를 새겨 보게 된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기상 나래치는 만경대와 잇닿은 다박솔언덕에 우리 장군님께서 찍으신 선군의 첫 발자국을 다시금 더듬어 보시라.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였던가.

조선의 창창한 장래를 위한 얼마나 담대한 용단이였으며 얼마나 명철한 선견지명이였던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선택은 민족구원, 사회주의수호, 강성대국건설의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진로를 펼친 로련하고 세련된 정치의 일대 과시였으며 고난의 오솔길을 희망의 대통로로 전환시키는 비상한 혁명적락관주의의 장엄한 분출이였다.

다박솔언덕에 의해 만경대력사의 갈피에 위대한 선군의 자욱이 새로이 찍혀 졌다.

내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해서라도 조선민족이 세상을 굽어보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갈 ≪지원≫의 뜻을 안고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새벽길의 첫 자욱을 찍으시였고 우리 수령님께서 주체시대의 새날을 부르시며 혁명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만경대,

우리 장군님께서는 여기 만경대와 더불어 빛나는 력사의 봉우리 다박솔언덕에서 선군의 첫 자욱을 찍으심으로써 선군시대의 장엄한 포성속에 위대한 력사의 계승의 지를 함께 울리시였다.

다박솔언덕에 오르면 일찌기 백두산시절의 1943년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소백수골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조선혁명의 장래를 두고 하신 뜻 깊은 이야기가 추억깊이 울려 온다.

항일전에 희생된 동지들을 추억하시며 못내 가슴 아파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혁명의 길에서 너무도 많은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잃었소, 우리들앞에는 그들의 몫까지 합쳐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민들이 바라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소, 나는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 다한다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야 말것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한몸에 안고 찍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박솔언덕의 자욱이여서 선군은 그렇듯 성스럽고 위대한 위업인것이다.

그렇다. 선군은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슬픔을 가시기 위한 일시적선택이 아니였으며 눈앞에 닥친 자연재해나 원쑤들의 압력과 봉쇄에 맞서는 단순한 림기응변이 아니였다. 선군은 결코 력사의 살벌한 광풍속에서 위대한 과거만을 수호하고 운명의 오늘만을 수습하는 전술적인 책략이 아니였다.

선군로선은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백두산총대로 관통시켜 휘황찬란한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정치가의 웅심 깊은 선택이였다.

승리의 체험은 선군에 대한 신념을 낳았다.

력사의 광풍이 너무도 모질었기에 선군의 광휘로운 빛발이 어디까지 뻗쳐 졌는가를 고난의 첫 시작에서는 우리 다 알수 없었다.

거무틱틱한 먹장구름이 산산쪼각나고 찬란한 해빛이 누리를 비칠 때 태양의 진가를 알게 되듯이 세계를 뒤흔드는 선군아리랑북소리에 심장을 뜨겁게 적시는 오늘 세계는 다박솔언덕에서 울린 선군포성의 거대한 진폭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총대를 앞세우고 단행한 ≪고난의 행군≫에서의 승리는 선군정치가 백번 옳고 선군로선이 백번 승리하는 위대한 기치라는것을 가슴 후련하게 보여 주었다.

선군은 간고한 사회주의수호전의 출발점이자 최후승리의 리정표이다.

선군은 이 땅, 이 하늘아래 통일강성대국이 일떠설 때까지 내 조국의 운명을 끝까지 걸머지고 매 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투쟁로선이다.

선군은 제국주의원쑤들을 력사의 오물장에 매장하는 그날까지 들고 나갈 변함 없는 반제계급투쟁기치이며 온 지구우에 자주화의 노을이 붉게 물 드는 그날까지 드팀없이 들고 나갈 항구적인 투쟁강령이다.

총대우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혁명적락관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불변의 신념으로 굳세게 뿌리 내렸다.

(내일 계속)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8회
학사 김창호 선생 - 주체91, 5월 16일

경애하는 수령님을 충성으로 모시고 옹호보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옹호보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2, 1953년 9월 1일부터 주체43, 1954년 1월까지는 상속인민학교, 주체43, 1954년 2월부터는 8월까지는 평양 제4인민학교, 그리고 주체43, 1954년 9월부터는 평양 제1중학교에 다니시면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며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옹호보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가지 체계로 학습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는 입장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우리 혁명의 최고 뇌수이시고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자주 해설해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체48, 1959년 4월 레닌의 혁명활동을 담은 영화에 대한 감상토론회에 참가하신 그이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영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은 어버이 수령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을 곧바로 걸어올 수 있게 되였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잃었던 조국을 찾고 새조국을 일떠세울 수 있은 것도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은 것도 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여러 혁명사적지들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대한 참관사업도 자주 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고 그들 속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로 더욱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청소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기념일을 가장 뜻깊게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3, 1954년 4월 평양 제4인민학교 학생들에게 설 명절을 비롯한 많은 명절들 가운데서 4월 15일이 가장 뜻깊고 경사로운 명절이라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은 제일 기쁜 날이고 첫째가는 명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축하문을 올리는 사업을 발기하시고 이 사업을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2돐을 맞으며 평양 제4인민학교 교직원, 학생들은 자기들의 명의로 된 축하문을 수령님께 정중히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행사들에 대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 사업에서 자신의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주체45, 1956년 5월 1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5.1절 군중시위가 진행되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중시위에 참가하셨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무거운 틀을 지셨지만 정중한 자세를 변함없이 견지하시면서 행사대열을 이끄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오시면 먼저 교실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졌는가를 살피시고 깨끗한 천으로 닦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신변안전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2, 1953년 6월 1일 어버이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시며 축복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편지에서 어버이 수령님은 개인의 몸인 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수령이시라고 수령님께서 건강에 유의하고 한봉에 지휘하고 항상 몸조심함은 전체 조선 인민의 행복이며 또한, 우리들의 행복이라고 쓰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때 쓰신 편지내용을 담아서 그후 축복의 노래라는 가요를 지으셨습니다. 이 가요는 앞으로 강의에서 취급하도록 의논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신변안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호위일군들이 삼아야 할 철칙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 하실때에는 먼저 그 노정을 돌아보시며 신변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주체46, 1957년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관계공사장을 현지지도 하실때 수령님께서 돌아보실 노정을 먼저 걸어보시며 공사장의 불리한 개소들을 다 정비한 다음에 수령님을 모시도록 하신 실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의 이런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서 전후의 그토록 어려울 나날에도 어버이 수령님의 안녕과 신변안전 사업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며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옹호보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는 입장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것은 수령과 수령이 개척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옹호보위 하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그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해 나갈때 수령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도 옹호보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문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 이것은 종파분자들과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했습니다. 종파분자들의 책동은 학교 교육사업과 청소년 교양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사정은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리도록 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우선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견결히 옹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실례를 하나들겠습니다.

주체45, 1956년 5월 평양 제1중학교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전망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에 출연한 교장은 교묘한 방법으로 당 정책을 왜곡 중상하는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결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양의 궤변을 정면에서 단호히 반박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누가 말하든지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맞지 않을때에는 즉시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학생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당의 사상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셨습니다. 당시 교장을 비롯한 종파추종분자들은 평양 제1중학교 학생들은 당 정책 교양을 받지 않아도 다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교육강령에 제시된 당 정책 과목을 빼자고 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7, 1958년 3월 이른바 황중교양론을 들고 나오면서 학생들에 대한 당 정책 교양을 반대하는 종파놈들에게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해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당의 노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려는 정치사상적 각오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고 학교 안에서 당 정책 관철을 방해하려던 종파분자들의 책동이 분쇄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길을 개척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18광주항쟁과 노농대중의 과제

우리 민중운동뿐 아니라 동방의 민중운동사에 특기할만한 장을 기록하고 있는 5.18민중항쟁 22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노농대중은 항쟁용사들의 지향과 염원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 마음가짐을 더욱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5.18광주항쟁 22주기를 맞으며 ≪5.18광주항쟁과 노농대중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80년 5월 영웅적인 광주민중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광주항쟁에서 우리 노농대중이 어떻게 싸웠고, 또 현시기 노농대중 앞에는 어떤 과제가 나서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80년 5.17비상계엄령의 전국확대실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발단된 광주항쟁은 각계층 민중이 대거 참가한 대중적인 민중항쟁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노동자, 농민, 실업가, 소상인, 공무원, 종교인 등 자유와 민주, 통일을 갈망하는 각계 민중이 재산과 지식의 유무,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참가했고 심지어는 초등학교의 어린이로부터 70, 80고령의 노인들, 부녀자들까지 항쟁의 거리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총을 잡고 싸웠고 10일간이나 민주광주, 해방광주를 지켰습니다. 항쟁자들의 지향을 봐도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외세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광주민중항쟁은 우리 민중의 반미반파쇼민주화투쟁에서 자기의 좌표를 뚜렷이 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은 동방민중항쟁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투쟁으로써 한국민중운동사에 자랑스런 장을 기록한 특기할 장거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거죠. 그럼 22년전 광주민중항쟁에서 우리 노농대중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김현규 : 앞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광주항쟁은 군부독재집단의 5.17폭거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의해 폭발됐지만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들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아시아자동차, 일산방직, 전남방직, 호남정유, 광주소속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등 광주시의 많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화순탄광 광부들과 목포와 함평, 무안, 나주, 영산포, 영암, 장진, 장흥, 해남지역의 수많은 농민들이 항쟁에 합세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참으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사회자 : 노농대중은 광주항쟁의 주역으로 많이 참가했을 뿐 아니라 투쟁에서도 매우 견결하지 않았습니까. 투쟁의 앞장에 서서 난국을 타개하면서 항쟁자들을 결사항전에로 힘있게 추동한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였죠.

김현규 : 그렇죠. 공수특전단의 유혈적인 탄압으로 해서 항쟁이 일시적이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운전기사들이 대형트럭과 버스, 택시 200여대로 일제히 조명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도청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일시 주춤했던 민중항쟁을 확대고조시킨 전환의 계기가 됐었던 거죠. 공수특전단의 무차별 총격에 대응해 무장을 갖추고 결사항전을 벌인 사람들을 봐도 대부분이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도시영세민들이였습니다. 그리고 항쟁지도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시민군의 경우를 봐도 그들의 과반수가 직접 노동에 종사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사회자 : 당시 상황실장의 지휘하에 도청을 사수하기로 된 200여명의 시민군중 가운데 65%가 노동자들이였지 않습니까. 공수특전단의 무력진압이 있기 하루전인 26일 계엄군과의 최후항전을 위해서 기동타격대를 조직했는데 여기에도 기동타격대장을 비롯한 50%이상이 노동자, 농민들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광주민중항쟁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청년학생들과 함께 얼마나 용감히 싸웠고 또 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노농대중이 광주민중항쟁에서 피흘리며 싸운 때로부터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들 앞에는 자주, 민주, 통일실현의 과제가 의연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22년전 광주민중항쟁의 거리에서 노농대중이 피나게 절규한 자유와 민주, 생존의 권리는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광풍은 노동대중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휩쓸면서 그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농민들 역시 농사거리를 빼앗기고 땅을 잃고 빚더미에 깔려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민주민권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마저 여지없이 유린, 말살되어 노농대중은 극도의 정치적 무권리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우리 민중의 민주화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광주민중항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하도록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의연히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광주민중항쟁은 끝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 노농대중 앞에는 광주항쟁을 최후승리에로 이끌어 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침략자, 약탈자인 미국의 정체는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 땅은 반미의 무풍지대로부터 반미의 열풍지대로 급격한 전환을 가져왔죠. 오늘도 이 땅에서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연습과 신자유주의경제침탈책동을 반대하는 반미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22년전 미국은 광주의 한개시의 시민들을 죽이도록 책동했다면 오늘은 핵참화의 먹구름을 몰아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신자유주의경제침탈책동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이 땅의 경제와 민권을 완전히 거머쥐고 한국을 저들의 식민지로 더욱 철저히 장악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나선 우리 민중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미국인거죠. 때문에 노농대중은 22년전 광주유혈사태를 빚어내게 한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간섭이 지속되는 한 그날의 광주항쟁자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없고 또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우리 노농대중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고 그에 추종하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을 청산하는 바로 여기에 끝나지 않은 광주항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민족적 숙원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겁니다. 노농대중은 광주항쟁에서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살려 자주, 민주, 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줄 압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노농대중은 22년전 그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걸고 투쟁한 광주항쟁용사들의 그 염원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할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5일~16일

친미사대매국노의 도미망발을 해부해본다

외교통상부장관이라면 직분상 그 누구보다 대세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시류를 잘 알고 그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성홍이 미국에 건너가 저지른 언동은 대세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움직임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을 느낄줄 모르는 정치저능아라는 걸 보여주었다고 할겁니다.

오늘 온 겨레가 남북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때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올리는 최성홍의 망언은 당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때 더욱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친미사대매국노의 도미망발을 해부해본다≫, 윤정원씨 자리함께 했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요즘 국민각계에서 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의 도미망발을 저지,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 강도높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사대굴종행위의 극치≫, ≪미국에 개질을 해도 너무하다≫, ≪사대매국행위가 체질화된 저런 자를 외교통상부장관자리에 앉혔으니 뭐가 되겠는가≫, ≪남북관계개선도 그렇고 통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 뭐 이러루한 얘기들로 최성홍을 규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돼서 최성홍의 망발이 내외로부터 그처럼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현정권들어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리바뀜이 몇번 있었습니다만 최성홍과 같이 대세의 흐름도, 민심의 향방도 분간하지 못하고 미국에 개질을 한 그런 친미사대매국노는 아마 없은 줄로 압니다.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성홍을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4.5공동보도문발표로 눈석이처럼 풀려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들의 뜻깊은 상봉이 있은때로부터 우리 겨레에게는 또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건 온 겨레를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 때 최성홍이 미국에 찾아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압살정책을 추어주면서 마치 그 결과로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된 것처럼 떠들었는데요. 그거야말로 민족이라는 개념은 안중에 없이 오직 상전인 미국에 아부하는 것으로 살구멍을 찾는 쓸개빠진 매국노만이 할 수 있는 비열하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사대굴종행위라 하겠죠.

사회자 : 상전과 노복간의 관계란 바로 그런거죠. 상전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가는 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되든 제 목숨하나 건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최성홍이 그렇게 비굴하게 놀아댔는데 무엇보다도 최성홍이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정책을 추어주는 망발을 한 것부터가 고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정원 : 말할 나위없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뭡니까. 한마디로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려는 건데요. 이걸 지지해나섰으니 이런 반민족사대매국행위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차단봉이 내려지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앞길에 시련이 닥쳐왔었죠. 그뿐이 아니죠. 반테러의 명목밑에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악의 축≫망발과 핵공격대상국지정으로 이북을 위협하는 부시행정부의 강경압살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치닫게 했고 남북관계를 엄중한 상태에 처하게 했거든요. 남북의 온 겨레가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강력히 반대배격한건 바로 그 때문아닙니까.

사회자 : 우리 민중은 온 겨레에게 또 한차례의 전쟁을 강요하려는 부시를 악의 화신으로 낙인찍고 격렬한 반부시반미투쟁을 벌이는게 아니겠습니까.

윤정원 :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최성홍에게도 눈과 귀가 있는 이상 온 겨레의 거세찬 반부시반미함성을 들었을 거예요. 헌데 그가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는 외면하고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올리는 망동을 거리낌없이 저질렀거든요.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는거죠.

사회자 :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건 최성홍이 마치도 미국의 힘의 정책에 의해서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된듯이 떠든 건데요. 이거야말로 핵참화를 덮씌워 우리 겨레를 전멸시키려는 미국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책동에 부채질하는 민족반역행위이고 대화상대방인 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윤정원 :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냉전시대의 원점으로 돌려세웠다는거야 코흘리개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힘의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회복됐다고 상황에 반대되게 떠들었는데요. 정신이 나가도 한바탕 나간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망언입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인해서 동결상태에 이르렀던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단계에 들어서고 남북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다시 시작되게 된 건 전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이북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인겁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엄연한 진리죠. 그런데도 최성홍은 이 엄연한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까지 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동족을 우롱하며 모독해나섰는데 사대굴종이 체질화, 행동방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살구멍을 찾는 추악한 사대매국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따위 쓸깨빠진 짓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자 :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되고 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근본적 전환의 시기를 열어놓은 것으로해서 온 민족의 환영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 달가와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최성홍과 반민족반통일분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윤정원 : 명색이 외교통상부장관이라는 자가 밖에 나가 내밷은 망발은 결코 그 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는거죠. 바로 여기에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당국은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격으로 대화와 접촉의 간판을 걸고 그 막후에서 권력유지를 추구하고 딴전을 부리지 말아야 할겁니다.

사회자 : 그럼 왜 최성홍이와 같은 반민족반통일분자들이 우리 민족의 일치한 반대배격을 받고 있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적극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윤정원 :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의 반북대결분자들은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앞에서 극도로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나 상전의 북침야욕을 돋궈주고 그와 야합해서 동족을 배척하고 남북관계를 또다시 대결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려고 책동하고 있는데요. 최성홍은 바로 그러한 반통일대결의 1등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 것뿐인데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진심으로 성의와 노력을 다하는 북을 배신하고 모해하면서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을 옹호해나선 최성홍이야말로 극악한 민족반역자, 반통일대결분자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결국 민족단합과 통일에 백해무익한 최성홍이와 같은 악질적인 반북대결분자들을 권력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성과적인 이행도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반통일죄야말로 역적질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통일역적들은 통일의 날이 먼 장래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할겁니다. 반통일역적들은 민족과 역사가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4일~16일

이제 학살의 진짜원흉을 단죄할 때이다

5.18광주민중항쟁이 올해로 22돌을 맞이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전 성원의 마음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위해 꽃잎처럼 스러져간 5월 영령들께 삼가 고개를 숙이며 그 숭고하고 위대한 5월 혁명정신을 기린다.

5.18광주민중항쟁은 100여년에 걸친 우리 민중의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위대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봉화이다.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위대한 혁명정신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며 자주, 민주, 통일의 새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중의 거대한 전진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22년이 지난 오늘까지 5월 광주영령들의 서리서리 맺힌 한을 다 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중의 우대한 투쟁으로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구속 처벌하기도 하였고 폭동으로, 폭도로 왜곡 날조되었던 것을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로 잡기도 하였지만, 권력에 눈이 뒤집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피에 절은 권좌에 올라앉아 권력을 휘둘러 온 학살자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 학살자들이 국권을 찬탈하면서 급조한 정당은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때 마다 그 간판만 바꾸어 달고 지금도 제1야당으로 당당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들은 옛 영화를 되찾는 데 혈안이 되어 예의 학살자들이 내세웠던 반민족, 반통일의 반역행위를 앞장서 주도하고 있다. 학살의 공범인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은 그에 뒤질세라 5월항쟁 민중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으려 사력을 다해 날뛰고 있다.

우리는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철저히 단죄, 청산되어야 마땅한 이들이 아직까지도 득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0년 신군부의 천인공노할 대학살과 그에 잇따른 정권탈취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한 미국, 저 인면수심의 범죄집단이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학살의 진짜주범 미국의 죄를 묻지 않고서는 5월광주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5월영령들의 한이 풀렸다고 말할 수 없다! 광주민중항쟁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57년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온 민족의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삼천리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생가지 찢듯 겨레를 갈라놓은 분단의 원흉 미국! 22년 전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향한 피의 학살을 사주하며 지휘한 학살의 진짜 주범 미국! 보라! 그 미국이 오늘은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칠천만 민족의 희망, 615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잔칫상을 뒤엎기 위해 수없이 자행했던 북에 대한 압살정책도 모자라서 이젠 북을 대상으로 한 핵전쟁 음모를 꾸밈으로써 우리 민족 뿐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농간하려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5.18광주민중항쟁이 지핀 반미의 불씨는 22년이 지난 오늘 이 땅 모든 민중의 심장을 원한과 분노의 피로 들끓게 하며 거족적인 반미항쟁의 봉화로 타오르고 있다. 해방자, 원조자, 우방의 가면 속에 가려진 침략자, 학살자 미국의 정체는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으며, 경향각지에서 날로 커지는 반미의 거대한 함성은 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오늘, 위대한 광주민중항쟁의 진원지인 광주의 도청에서 학살의 진짜 주범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사대매국세력들의 천인공노할 죄상을 만천하에 밝히고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시민법정≫이 열린다.

역사는 기억하리라. 이 땅 만악의 근원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그날 광주민중항쟁의 진원지 한복판에서 열리는 오늘의 이 시민법정을 ≪미국단죄≫의 힘찬 첫걸음을 내딛은 위대한 쾌거로 뚜렷이 기록하리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우리는 57년간 이 땅을 총칼로 타고 앉아 우리 민족을 둘로 가르고, 전쟁을 빙자해 백만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심지어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앨 핵전쟁 음모까지 꾸미는 침략자 미국을 심판하는 위대한 반미항전을 힘차게 벌려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광주의 위대한 항쟁이 이루어낸 해방세상을 삼천리 조국강토위에 아름답게 펼치리라.

2002/05/18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5.18 민중항쟁 22주년, 비민주 반자주 역통일의 현실

5.18 민중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상황은 참으로 착잡하다

수많은 민중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며 온몸으로 항거했던 그 날의 정신이 계승되고 고양되기 보다 단절되고 퇴색되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뼈저린 자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5.18 민중항쟁은 반독재 민주화, 민중생존권 쟁취, 반미 자주화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80년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겨레의 운동에 자양분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계승자임을 자부하며 40년 만의 정권교체를 소리높이 외쳤던 김대중 정부는 숱한 부정과 비리속에 이미 총체적인 부패정권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또 군사독재의 원조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민주와 독재의 구분선마저 애매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되었을 정도로 김대중 정부의 노동탄압은 심각하고, 월드컵 때문에 노점상의 생존권마저 내팽개쳐지는 등 민중의 생존권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에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미국의 압력에 밀려 F15기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등 민족의 자부와 자존은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 정부가 집권 5년간의 유일한 치적으로 자랑해 왔던 남북관계도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과 미국의 극단적인 반북 공세로 인해 갈수록 꼬이고 있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숭고한 5.18 정신의 계승을 위해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고, 무엇이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자주와 통일을 한걸음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지 우리 모두 지지한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우리는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 투쟁에 앞장서며, 민족 자주를 바탕으로 통일조국 건설에 나설 수 있는 진보정당이 집권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기필코 승리하여 진보정당 집권의 기틀을 마련해 갈 것을 다짐해 본다.

2002/05/18
민주노동당

5.18민중항쟁 22주년 전야제 성황리 끝나

5.18민중항쟁 22주년 기념 전야제가 ≪반전, 평화, 자주와 통일로≫를 주제로 17일 오후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5월 관련단체와 시민, 학생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풍물 길놀이에 이은 가수 김원중, 박문옥씨의 통키타 반주에 맞춘 민중가요 합창으로 시작된 이날 전야제는 5.18민중항쟁의 전 과정을 재현했다.

전야제 1부에서는 80년 5월 당시 차량 행렬과 여성단체의 촛불행렬, 학생 시위행렬, 시민군과 계엄군의 도청 앞 대치, 계엄군의 시위대 진압장면 등이 재현돼 5.18을 겪지 못한 세대들에게 그날의 함성과 절규, 피비린내 나는 참상을 생생히 전했다.

2부에서는 횃불을 든 시위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중앙무대 앞에 도착, 80년 도청 앞 성회(聖會) 장면과 도청 탈환에서 수습대책위와 사수대의 마지막 밤 등의 상황을 연출했다.

이날 전야제는 광주학살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을 심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대동 한마당을 끝으로 3시간에 걸친 행사의 막을 내렸다.

전야제가 끝난 뒤 시민들은 금남로 곳곳에서 풍물단체, 북춤 행렬과 어우러져 민주유공자법 제정, 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등 5.18의 명예회복을 자축하고 5월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남현호 기자
2002/05/17 연합뉴스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

관련법률 개정 예외인정 추진, 주권시비 논란

정부가 옛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 직원용 8층, 5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용을 돕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까지 개정키로해 주권시비가 일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적용되는 아파트 평형 규제는물론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예외를 인정받게 돼 특혜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미 대사관측이 서울 중구 정동 부(副)대사 숙소를 헐고, 그 자리에 8층 높이로 54가구 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해와 관련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아파트 평형은 물론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부대시설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공개청약을 통해 일반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미 대사관이 건립하려는 아파트는 대사관 직원용으로 외교관 시설로 봐야 하며, 따라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적용은 무리≫라며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임인택 건교부 장관과 고 건 서울시장을 만나 ≪대사관 숙소라는 특수성을 감안, 일반 아파트를 지을때 적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한 미 대사관측은 서울시와 서울중구청에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지난 4월 미 대사관측에서 숙소용 아파트건립계획을 알려왔으며 검토결과, 해당부지가 옛 덕수궁 터인 만큼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 발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의 심장부인 옛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 직원용으로 8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민족적인 자존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대주의적 행정≫이라며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인교준 기자
2002/05/17 연합뉴스

미대사관 직원때문에 관련법규까지 고치다니

덕수궁을 미대사관저 정원으로 만들려는가

미국대사관이 덕수궁 인근에 대사관저 내에 9층이 높이의 직원숙소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돕기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대사관저 내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군 직원들을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을 요구하는 미대사의 뻔뻔함과 당당함에 놀라울 따름이고 건설교통부 임인택 장관과 고건 서울시장의 관대함에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용산 미군기지내에 아파트 건립으로 논란거리를 제공하더니 이제 또다시 서울의 대표적 문화재 인근에 직원 숙소를 짓겠다고 관련법규의 개정까지 요구하는 허버드 미대사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요구하면 법규까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미대사는 원래 그렇다치더라도, 예외규정을 만들겠다며 알아서 기는 건교부나 서울시의 작태는 이나라 국민의 행정조직인지 미국의 행정서비스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톤 오노, F-15강매 등으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지금, 숙소를 짓기 위해 법규개정을 요구하는 미대사의 발언은 또다시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에 기름을 끼얹는 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건교부와 서울시는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임을 명심하고 예외규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어느 네티즌의 의견처럼 ≪미국은 한국내에서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만들던지 말이다.

2002년 5월 1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배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권확보 총력투쟁≫

민주노총은 17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지난 1년동안의 논의결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가 발표한 노사정 1차합의 결과에 대해 ≪1년넘게 진행된 논의 결과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염경석 미조직 특위원장은 ≪7백 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논의≫라고 비판하고 ≪이번 합의는 임시계약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파견 용역 호출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기존 노동법은 정규직 중심의 법체계로 관련법 보완과 개편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오종렬상임의장(전국연합), 이종린의장(범민련남측본), 홍근수대표(자통협),권영길대표(민주노동당)등 전국 각 지역 사회인사 5백 여명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16일 시국선언을 통해 향후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권확보 투쟁에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연합 노수희 상임의장은 선언문을 통해≫ 김대중정부는 세계화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임금은 정규직의 53.7%수준에 주당 노동시간은 47시간이 넘는 열악한 현실≫이라며 여성, 저학력계층, 노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차합의문을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범위에 대해 ≪고용형태로 비정규노동자를 개념 규정하고 근로조건 사항은 별도로 판단하자≫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되 불안정노동자에 대해 명확한 개념과 통계조사가 필요하고 조속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감독강화방안으로 노사정위가 제시한 ≪명예상담원제도를 활용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충을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민주노총은 명예상담원제도는 구속력 없는 제도로 권리 보호기능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근로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국회 계류중인 명예근로감독관제에 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에 대해서 노사정위가 ≪확대적용을 위해 노력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산업재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소극적 입장이었던 데 반해 민주노총은 국회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빠른시일내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차별 철폐와 동일가치동일임금의 보장 ▲기간제 노동사용의 규제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부당노동행위 상습범 처벌의 강화 및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보장 ▲경영주체 변경시 고용관계계승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 전면 적용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철폐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사정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등 투쟁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노동탄압을 계속할 경우 월드컵때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오는 18일 각 지역 본부별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17일 김대통령의 지시로 이한동 국무총리가 월드컵 기간내에 파업을 자제를 부탁했으나 민주노총측은 단병호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등 요구 조건이 관철 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 정부간 충돌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희 기자
2002/05/17 시민의 신문

이란의 반제반황제민중운동경험에 대하여(1)

1. 팔레비절대군주제의 수립과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역사적 배경

1) 팔레비절대군주제의 수립
2)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직접적 배경

2.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발전과정

1) 민중운동발전의 준비단계 (1977년도)
2) 민중운동발전의 제1단계 (1978년 1월-1978년 9월)
3) 민중운동발전의 제2단계 (1978년 11월-1979년 1월)
4) 민중운동발전의 제3단계 (결정적 단계 : 1979년 2월)

이란민중은 오랜 기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팔레비절대군주제도에 포악한 파쑈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벌여왔다.

이란민중의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은 특히 1977년말부터 고조되어 1년 7개월간의 피어린 항쟁끝에 마침내 팔레비절대군주제를 전복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이란에는 38년간 군림해온 팔레비파쑈독재정권이 뒤집히고 1979년 2월 12일 호메이니를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정권이 수립되었다.

1. 팔레비절대군주제의 수립과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역사적 배경

1) 팔레비절대군주제의 수립

아시아의 서남부에 위치한 이란은 일찍부터 미, 영, 독 등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 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제국주의식민지로 있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제국주의 영국과 독일은 서로 이란을 지배하려는 침략적 야망밑에 치열한 쟁탈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페르시아군부였던 레자칸 팔레비(팔레비의 아버지)는 이 혼란된 정세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카자르왕을 내쫓고 왕좌에 들어앉았다.

왕위를 탈취한 레자칸 팔레비는 주로 영제국주의자들과만 연계를 강화하여 오다가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이란을 반쏘전초기지로 전변시키려는 히틀러파쑈독일의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영제국주의자들을 배척하였다. 격분한 영제국주의자들은 군대를 이란에 파견하여 레자칸의 친히틀러정책을 파탄시켰으며 팔레비를 왕위에서 내쫓고 1941년 12월 그의 아들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를 왕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한편 이란민중들의 반제반황제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급속히 앙양되었다. 이런 가운데 실시된 1951년의 선거에서 민족부르조아정당연합체인 ≪민족전선≫이 승리하여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왕 팔레비는 헌법에 따라 ≪민족전선≫지도자였던 모사디크를 정부수반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사디크정부는 민중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를 국유화하고 1952년 1월에는 영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 반제적이며 진보적인 시책을 실시하였다.

모사디크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당황한 영제국주의자들은 팔레비를 부추겨 1958년 8월에 모사디크를 총리직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군사정변을 조작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으며 팔레비왕은 이탈리아의 로마로 망명하게 되었다.

이란을 틀어쥐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 혼란된 틈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미제국주의는 당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아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미중앙정보국요원들을 이란에 들여보내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모사디크정부를 전복하였다. 그리고 망명한 팔레비를 데려다 왕위에 복귀시키고 그로 하여금 친미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하도록 조종하였다.

팔레비는 미제국주의의 사촉밑에 종래의 헌법을 폐지하고 모든 국가권력을 자기가 틀어쥐고 행사하는 친미군사독재체제를 수립하였다.

팔레비는 우선 미중앙정보국의 조종밑에 파쑈통치의 중추적 폭력기구인 비밀경찰 ≪사바크≫를 창설하고 군대, 경찰 등 폭압 역량과 수단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전국도처에 폭압망을 거미줄처럼 늘여놓았다. 이리하여 이란에는 전대미문의 가혹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게 되었다.

팔레비는 또한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새로운 석유협정을 맺고 이 나라의 모든 석유이권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석유는 사실상 미제의 독점적 소유물로 넘어가고 말았다.

팔레비는 또한 이란을 쏘련을 견제하기 위한 ≪반공≫의 보루로 만들려는 미제의 침략야망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나라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미제에 예속시켰다. 그리하여 이란에 대한 미제의 군사경제≪원조≫가 강화되고 1955년에는 침략적 군사동맹인 ≪쎈토≫에 가입했으며 미국제무기를 사들여 무장하기 시작했다.

팔레비는 또한 미제의 조종밑에 이란을 ≪근대화≫, ≪서구화≫한다는 이른바 ≪백색혁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이란을 더욱더 미제의 예속밑에 밀어 넣었다.

이리하여 이란은 미제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로 되었다.

팔레비의 대미추종정책은 이란사회내부의 계급계층들간의 모순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이란의 사회계급관계는 미제침략세력과 황족, 반동관료배, 군부상층, 매판자본가, 지주계급을 한편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중소상공업자, 민족자본가, 학생, 지식인, 중하층군인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두 세력으로 대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회계급관계로부터 이란사회의 기본모순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미제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인 황족세력, 반동관료배, 군부상층, 매판자본가, 지주들과 노동자, 농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또한 이란경제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바사루(시장경제동맹체)경제의 파산몰락으로 인하여 미제침략세력, 황족, 매판자본가들과 중소상공업자들 사이의 대립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미제의 조종밑에 감행된 팔레비의 반회교정책으로 말미암아 황제와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회교도들간의 대립 그리고 황제세력과 학생, 지식인 등 사회계층사이의 대립이 중요한 사회적 모순의 하나로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관계로 인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대중의 반제반황제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황제통치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전반기에 있은 이란민중의 적극적인 반제반황제투쟁의 고조와 서부지역 농민들의 계속되는 투쟁은 팔레비파쑈통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란사회의 정치적 불안정과 위기를 격화시켰다.

이것은 이란에서 팔레비친미독재군주정치의 대두와 함께 동반된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배경이었다.

2)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직접적 배경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직접적 배경은 우선 팔레비가 강행한 ≪근대화≫정책이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대립을 극도로 첨예화시킨 데 있었다.

친미파쑈독재자로 군림한 팔레비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사회적 모순과 대립을 완화하고 민중들의 투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제상전이 고안해준 ≪근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백색혁명≫을 강압적으로 추진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대립을 한층 더 첨예화시켰으며 국민대중의 반제반황제투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근대화≫정책에 의하여 석유에 의존하는 무질서한 공업화가 추진됨으로써 일련의 예속적인 공업부문이 창설되고 일정한 기간의 경제성장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란경제를 미제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에 더욱더 예속시키고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빚어냈으며 막대한 군사비지출과 황제, 황족의 부정축재로 전반적인 이란경제를 침체속에 몰아넣었다.

≪근대화≫의 미명아래 실시된 기만적인 토지개혁은 이란농촌의 계급적 대립을 더욱 격화시켰다.

팔레비는 토지개혁을 통하여 지주들에게 땅값을 지불해줌으로써 지주들을 신흥자본가로 만든 반면에 농민들에게는 더욱더 무거운 부담만을 들씌웠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들이 이농하여 실업자로 전락되게 되었다.

≪근대화≫가 추진된 결과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전통적인 바사루경제였다.

팔레비는 ≪근대화≫추진에 장애로 되는 바사루경제를 와해시켜 없애버릴 목적밑에 과중한 세금부담과 무분별한 체포투옥 그리고 ≪도시개혁≫이라는 구실로 시장을 마구 철거시키는 등 바사루상인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전통적으로 이란민중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란민족경제에서 중추적 위치에 있던 바사루경제권내의 수많은 상인들속에서는 반제반황제감정이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비밀경찰에 의한 폭압과 인권유린행위, 물가고와 과중한 세금부담은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바사루경제에 의거하고 있던 소자산계급과 그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지식인들과 사무원, 학생들의 불평불만을 더욱 증대시켰다.

특히 서구화를 모방한 ≪근대화≫정책은 이란사회의 고유한 회교전통을 파괴함으로써 인구의 80%에 달하는 회교시하파의 불만을 격화시켰다. 더욱이 팔레비자신이 회교시하파를 ≪검은 반동≫이라고 모독하면서 그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강화한 것은 회교시하파세력들의 분노를 한층 격화시켰다.

이 모든 것이 팔레비절대군주제의 종국적 붕괴를 가져온 직접적인 배경으로 되었다.

다음으로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직접적 배경은 팔레비의 부정부패행위와 유례없는 파쑈폭압통치로 각계각층 민중들의 반제반황제감정을 극도로 격화시킨데 있었다.

팔레비가 1941년 12월에 집권한 후 부정축재한 개인재산은 사우디아라비아왕이나 쿠웨이트추장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였다.

팔레비의 개인재산이 공개된 것만 하여도 외국은행에

예금한 것이 무려 40억달러이며 그밖에도 17개의 은행과 보험회사, 8개의 광산, 25개의 금속회사, 55개의 건설회사, 43개의 식료회사, 26개의 무역 및 상업 회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개의 석유화학회사에 많은 이권까지 쥐고 있었다.

팔레비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압수단과 폭압역량을 꾸려놓고 전대미문의 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팔레비는 1만3천여명의 친위병과 5만4천명의 비밀경찰, 20만명의 특무, 13만명의 정복경찰, 6만명의 헌병, 1만명의 감찰원, 43만명의 군대 등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폭압수단을 가지고 민중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팔레비의 유례없는 부정부패행위와 무자비한 파쑈폭압은 이란민중들속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대립을 첨예화시켰으며 이것이 바로 반제반황제민중봉기의 직접적 배경의 하나로 되었다.

2.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발전과정

이란민중의 반제반황제운동은 전략전술적으로 몇 개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1) 민중운동발전의 준비단계(1977년도)

민중운동발전의 준비단계에서 반제반황제민중운동세력은 팔레비가 기만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투쟁준비를 다그치고 대중적인 민중운동발전의 발단을 열어놓았다.

팔레비는 민중들의 반제반황제투쟁이 앙양되자 이에 질겁하여 일부정치범의 석방을 비롯하여 군사재판의 개정, 형식상 고문의 중지 등 일련의 기만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억압당하고 있던 반제반황제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쟁단체들을 조직했으며 광범위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1977년 5월에 ≪민족전선≫위원장이었던 산자이를 중심으로 ≪자유인권옹호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학생연맹≫이 개선된 데 이어 많은 군중조직들이 출현하였다.

≪이란민중당≫은 당기관지를 비롯한 출판물들을 발간하여 대중속에 공개적으로 보급하면서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갔다.

전국회교시하파지도자들은 회교의 성도 콤시에서 1977년 9월에 집회를 가지고 헌법의 실시, 비밀경찰의 해체, ≪국가부흥당≫의 해산, 호메이니의 귀국승인 등 12개 조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무된 청년학생들과 회교도들, 바사루상인들과 지식인들은 반제반황제투쟁을 도처에서 힘있게 벌이기 시작하였다.

1977년 11월에 청년학생들과 회교도, 바사루상인들은 타브리즈에서 헌법의 실시, 비밀경찰들의 해산, 자유와 교권의 회복 등을 요구하면서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벌이었다.

이리하여 대중적인 반제반황제민중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았다.

2) 민중운동발전의 제1단계(1978년 1월~1978년 9월)

제1단계의 투쟁에서 반제반황제민중운동세력은 대중적인 시위와 폭동을 연일 계속 벌이면서 투쟁을 점차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발전시켜 나갔다.

1977년 11월 타브리즈에서 일어난 대중적 시위가 있은 후 투쟁이 계속 확대되어가는 가운데 1978년 1월 콤시에서 대중적인 투쟁이 일어났다.

이 투쟁은 이란민중이 황제를 반대하는 전민중적인 투쟁으로서 민중운동발전의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 투쟁을 계기로 이란민중들은 회교예배관계를 이용하여 40일주기로 투쟁을 끊임없이 해오다가 점차 전국각지에서 시위와 폭동을 매일같이 벌이는 데로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수도 테헤란에서 있은 ≪검은 금요일≫투쟁은 이란민중의 반제반황제운동을 대중적인 투쟁에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검은 금요일≫투쟁은 금요예배가 그대로 대중적인 시위로, 나아가서는 폭동적인 진출로 전환된 투쟁이였다.

또한 1978년 6월에 테헤란대학생들의 폭동이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대학생들의 투쟁이 보다 고조되었다.

대학생들의 폭동에 질겁한 팔레비는 테헤란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의 대학들을 폐쇄하였다. 이렇게 되자 대학생들은 투쟁무대를 거리와 지방으로 옮기고 더욱 적극적이며 결사적인 투쟁에로 넘어갔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항쟁민중들은 황족과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들이 경영하는 은행, 영화관, 고급호텔, 식당, 상점, 회사들을 습격하고 파괴소각하는 투쟁으로 팔레비의 ≪근대화≫정책과 ≪백색혁명≫에 도전하여 나섰다.

(내일 계속)

필자 미상 - 통일여명 편집국 가필
(편집국 보도 93호)

광 고

대학신입생에게 추천하는 영화 10선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계엄령≫까지

≪계엄령≫

우리에게 ≪뮤직박스≫, ≪매드시티≫로 잘 알려진 코스타 가브리스감독의 대표작. 1970년 우루과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미국인 대 마트리언 납치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타이틀 없이 시작하여 산토레가 납치되어 죽기까지 1주일간의 전개과정을 기록영화처럼 형상하고 있다. 좌익 게릴라 투파마로스의 리더가 이브 몽땅이 분한 산토레를 심문하는 장면은 극적 긴장을 잘 살린 명장면으로 꼽힌다. 사회주의자이자 진정한 배우인 이브 몽땅은 부정인물도 생생히 연기하였다. 국내에서는 20년간이나 미루어지다가 93년에야 비로소 상영된 문제작. 80년대 운동권들의 절찬을 받았던 바로 그 영화. 테러적 방법의 한계에 염두를 두고 지하조직과 외세, 괴뢰정권과의 투쟁을 살펴보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는 드문 영화.